

사회

전남교육청, 80억원대 컴퓨터 구매사업

핵심부품 규격미달 PC 선정 논란

전남도교육청이 80억원대의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규격미달 제품을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전남도교육청과 컴퓨터 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교육청의 '각급 학교 노후 PC 교체 및 저소득층 지원 PC 구매 사업' 일반경쟁입찰에서 S사와 L사 등 2개 업체가 경합을 벌였다. 모두 9068대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이 사업에는 81억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당시 입찰은 내·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규격심사와 2차 가격심사를 실시했으며 두 업체 모두 1차 규격심사에서 85점(최소 합격점)을 넘어 통과했다. 최종 가격심사에선 72억원을 제시한 S사를

제치고 66억원을 제시한 L사가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탈락한 S사측은 입찰 시행 전부터 "L사의 컴퓨터는 입찰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 제품"이라며 반발해왔다.

전남도교육청은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제시한 컴퓨터 성능 규격기준으로 ▲주 기억장치의 용량이 2GB 이상일 것, 비디오카드 내장형일 경우 비디오램 용량은 별도 ▲그래픽 기능은 온보드 또는 슬롯방식(슬롯 방식의 경우 비디오 램 512MB 이상일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S사에 따르면 L사의 제품은 주기억장치 용량이 3GB로 외형상 규격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디오카드 내장형일 경우 비디오램 용량 별도'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S사는 또 교육청에 항의서한을 보내 "입찰 규격대로 한다면 주기억 장치치는 2GB 이상이 되고, 그래픽 기능은 외장형(슬롯방식)으로 램 512MB를 확보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L사는 그래픽 카드 내장형 3GB 주기억장치를 채택함으로써 컴퓨터의 기능이 저하되는데도 도교육청이 규격심사를 통과시켰다"고 항의했다.

S사 관계자는 "L사처럼 그래픽 카드를 내장형으로 할 경우 컴퓨터의 가격은 낮아지는 반면 총 3GB의 주기억장치 용량 중 비디오램이 최대 1.3GB를 점유해 실제 용량은 규격(2GB)보다 부족한 1.7GB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컴퓨터 전문가들도 "그래픽 카드

가 외장형이면 가격이 다소 높아지긴 하지만 업그레이드 등이 쉽고, 그래픽 구현이 빠른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L사 관계자는 "S사의 주장은 억측이며, 컴퓨터의 기능면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면서 "그동안 공통인 것이 아까워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S사는 너무 원칙(규격)대로 했으며, L사는 우리가 제시한 규격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전략으로 입찰을 따낸 것"이라면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도 두 회사 제품 모두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문대 교직원 채용비리 의혹

총장실 등 압수수색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광주 모 전문대학의 국비 사업 연구비 집행과 교직원 채용비리 의혹(본보 3월 12일자 6면)과 관련해 총장실과 총장 자택 및 대학 산학협력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이 대학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 지와 교육역량강화 사업비가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내사에 들어간 끝에 최근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지난 2년간 교수를 신

규 채용한 3개 학과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동문 출신의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불공정 또는 부정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초부터 국비 지원 연구비 집행과 교직원 채용비리와 관련, 내사를 벌여왔었다.

경찰은 또 교수 채용의 문제인 만큼 인사권자인 총장이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교수 채용비리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교직원 인사와 예산 집행 등에 있어 잡음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연 2조 금고지정 보험용?

농협 간부들 장만채 교육감에 수백만원씩 후원금

올해 말 전남도교육청 지정 금고를 제계약해야 하는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간부들이 6·2지방선거에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수백만원씩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에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받은 후원금은 281건(명)에 2억116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농협중앙회 전남지역 본부장과 부분부장이 200만원씩을 후원했다.

농협중앙회 전남본부는 지난 2007년 3년 계약으로 '전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돼 연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말 계약 만료 이후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 따라 두 간부의 후원금이 '보협'적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지정금고이고, 장 교육



음란광고물 줍는 시장. 강문태 광주시장 등 광주시청 및 서구 공직자, 경찰,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0여명이 12일 새벽 6시부터 1시간 동안 광주 시 서구 삼두지구에서 음란성 불법 광고물과 담배꽂초, 전단지 등을 줍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원금 비리 의혹 어린이집 원장 자살

경찰 조사 후 목 매

어린이집 지원금 비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어린이집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9시경 무안군 모 어린이집에서 원장 이모(여·47)씨가 목을 매 숨진 것을 남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청한 뒤 어린이집에 찾아가보니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고용노동부 지원금 비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4월 중순에 전남지방경찰청에 출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지원금 6000만원과 무안군 저소득층 보육료 6000만원을 허위 수령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평소 어린이집 운영 문제와 경찰 수사 등에 대해 고민했다"는 유족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집중호우' 영광 저수지서 70대 의사

이만 발견됐었다.

12일 오전 7시45분께 영광군 군남면 한 저수지에서 김모(75)씨가 숨겨져 있는 것을 119대원이 발견했다. 김씨는 전날 정오께 저수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귀가하지 않아 119와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오토바이만 발견됐었다.

또 전날 오후 5시45분께는 목포시 산정동 모 교회에서 십자가 철타미 떨어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됐다. 119와 목포시는 집중호우로 십자가 철타미 부분에 균열이 생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건물 전체를 철거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 광주·전남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2060여ha가 침수되고 시설하우스 1000여동이 물에 잠기는 등 풍우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폭죽놀이 사고 초등학생

입원 50여 일 만에 숨져

폭죽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본보 5월 24일자 6면> 초등학생이 사고 발생 50여일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21일 폭죽을 갖고 놀다 사고를 당한 광주 모 초등학교 5학년 김모(12)군이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숨졌다.

김군은 사고 다음날인 5월 22일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김군이 수술후 호전됐다 가 의식불명에 빠졌으며, 신경안정제 과다투입으로 숨졌다면서 병원 측의 과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병원 측은 "김군은 처음부터 중상인 상태로 응급실에 왔으며, 수술 후에도 계속 의식불명 상태가 이어졌다"며 "자체 조사 결과 유족이 문제를 제기한 신경안정제도 적절히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교육청 "일제고사 불참 무단결석 처리"

광주·전남 37명 체험학습

광주·전남 사·도 교육청은 "13~14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불참하거나 체험행사 등으로 대처하는 학생에 대해 무단결석 처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학부모 단체 등이 일부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하남점

| | |
|-----------------------------|----------------------------|
| 1관 아리와 미니모어(2D/3D)/방자전(184) | 1관 슈렉 포에버(3D 2D/3D) |
| 2관 뽀빠이의 꿈(2D)/필립 모리스(184) | 2관 슈렉 포에버(2D)/이콜릭스(124) |
| 3관 포화속으로 (124) | 3관 나이트메이 (154) |
| 4관 나이트메이 (154) | 4관 나이트메이(154)/아리와 미니모어(2D) |
| 5관 슈렉 포에버(2D)/파괴된 사나이(184) | 5관 방자전(184)/필립 모리스(184) |
| 6관 슈렉 포에버(3D 2D)/스플라이스(184) | 6관 뽀빠이의 꿈(2D)/스플라이스(184) |
| 7관 이콜릭스 (124) | 7관 파괴된 사나이 (184) |
| 8관 킬러 인사이드 미 (184) | 8관 킬러 인사이드 미 (184) |
| 9관 파괴된 사나이 (184) | 9관 포화속으로 (124) |
| 10관 이콜릭스 (124) | 10관 이콜릭스 (124) |

www.joycbc.com

MEGABOX

| | |
|-------------------------|------|
| 1관 이콜릭스 (124) | 최고급관 |
| 2관 이콜릭스 (124)/슈렉포에버(2D) | |
| 3관 나이트메이 (154) | |
| 4관 파괴된 사나이 (184) | |
| 5관 슈렉 포에버(3D 2D/3D) | |
| 6관 포화속으로 (124) | |
| 7관 파괴된 사나이 (184) | |
| 8관 킬러인사이드미 (184) | |
| 9관 스플라이스 (184) | |
| 10관 이콜릭스 (124) | |

www.megabox.co.kr

CINUS

| | |
|---------------------------|--|
| 1관 이콜릭스 (124) | |
| 2관 포화속으로 (124) | |
| 3관 킬러인사이드미(184)/슈렉포에버(2D) | |
| 4관 슈렉 포에버(3D 2D/3D) | |
| 5관 나이트메이 (154) | |
| 6관 이콜릭스 (124)/뽀빠이의 꿈 (2D) | |
| 7관 파괴된 사나이 (184) | |

www.cinus.co.kr